

목적과 도구 :

좋은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글 | 손화철 _ 한동대학교 전임강사 whachuls@hotmail.com

지난 3회에 걸쳐 우리는 생명의료기술, 정보통신 기술, 나노기술 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현대기술의 발전이 제기하는 새로운 철학적 물음들을 살펴보았다. 현대기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과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철학적 물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두고 좀 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자. 현대 과학기술은 도구인가? 도구라면 무엇을 위한 도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진 도구인가?

도구로서의 기술

인간을 가리켜 '호모 파베르'라 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큰 특징이라는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호모 파베르라는 정의를 바꾸어야 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현대의 공학기술에 대한 정의 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역시 '도구'의 측면이다. 공학기술은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되고 사용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대 공학기술의 눈부신 성장은 결국 인간다움이 크게 발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도구의 미덕은 역시 주어진 목표를 잘 이루는데 있다. 목표를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충실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도구가 가장 좋은 도구이다. 요컨대 도구는 목표 혹은 목적에 종속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도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혹시 얼마간 사용되지 않을 수는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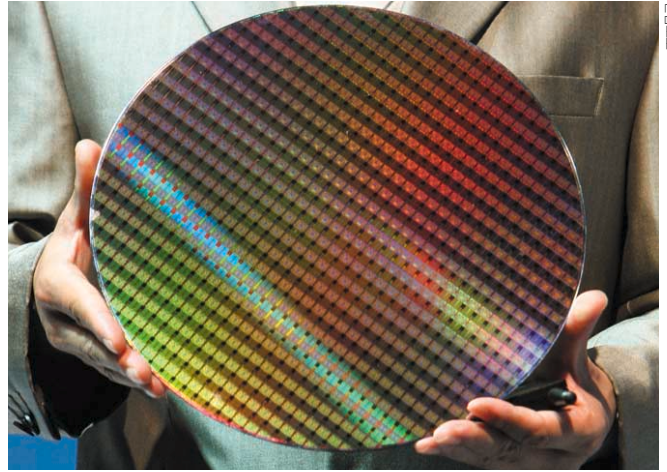
지 몰라도, 도구는 어떤 식으로든 남아서 다음의 사용을 기다린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동일한 목표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충족되었을 경우에, 세상은 이미 이전과 같은 곳이 아니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 토기에 담아 먹었는지 철기에 담아 먹는지에 따라 그들의 생활과 문화, 정치와 경제는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의 역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등으로 구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따라서 도구가 목적에 종속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즉 도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목적이 도구와 무관하게 설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 가능한 자원과 도구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목적과 도구의 상관관계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총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미국 총기협회(NRA)는 개인의 총기 보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고 총기 금지 법안 저지를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지속하는 단체다. 이 단체의 모토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로 미국에서 빈발하는 총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기 판매 및 휴대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총기 오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총기 휴대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술에 대한 법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 발표회에서 업계 최초로 45나노미터(머리카락의 5000분의 1 두께) 기술을 적용한 '펜린(penryn)' 웨이퍼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 45나노 기술과, 친환경 공정기술을 이용한 '인텔 코어 2 익스트림' 등 16가지의 새로운 칩을 소개했다(2007년 11월 13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적 제한 조치를 반박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요컨대 기술은 중립적인 도구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식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칼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주장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총이 저절로 일어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모든 종류의 기술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무기류는 살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식칼과 매우 다르다. 또 개발과 사용을 철저히 분리하지는 논변을 통해 훨씬 더 상상력이 좋은 총이나 잔인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 내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목적과 도구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의 악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의 차원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생각해야 할 것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건 좋은 의도에서건 새롭게 개발되는 과학기술이 단순히 주어진 목적을 이루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총기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보유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된다. 비교해야 할 것은 총기 보유를 통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살인사건의 건수가 아니라, 총기 보유가 허용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전체적인 비교다. 약간 막연하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비교와 판단이 필요하다.

목적으로서의 좋은 사회

하이데거와 엘털 등 현대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현대 기술사회의 문제는, 기술발전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도구인 기술이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현대에 와서는 기술이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인지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특정한 목적을 전제하고 기술이 개발되지만, 이후에는 그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적이 생겨난다. 컴퓨터 칩과 데이터의 용량이 앞 다투어 커지는 묘한 현상이 좋은 예다. 저장용량이 커지니 데이터의 용량도 커지고, 데이터 용량이 커짐에 따라 더 큰 저장용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요나스는 '목적

과 수단 순환적 관계'라고 칭한다.

여러 달 전에 기술발전을 우리의 운명으로 보고 무작정 치닫는 것은 철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이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제안을 감히 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생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조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의 주체들이 각각 좋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그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사회를 향한 것이어야 하겠지만, 본인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때 거론되는 기술이 선용된다는 가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 기술이 잘 사용되는 세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존재하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 세상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확한 예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에 대한 요청이다. 좋은 세상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함께 경합하며 서로를 향해 제기되는 반론을 이겨낼 만큼의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해당 기술의 개발이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면, 기술 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질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들의 자부심과 보람도 커질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